

주요 기업 주주총회

HD현대, 정기선 체제 본격화... 주주환원·사업재편 가속

지난해 역대최대 실적 달성
전동화 등 포트폴리오 다변화
조선부문 한미 협력사업 추진



권오갑 HD현대 명예회장이 지난달 31일 경기도 성남 글로벌R&D센터에서 열린 제9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유혜은 기자

HD현대 정기선 회장 중심의 경영 체제 전환에 나선 가운데, HD현대와 HD한국조선해양은 31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사업 재편과 주주환원 확대 방침을 제시했다. HD현대에서는 권오갑 회장의 용퇴와 함께 조영철 부회장이 사내이사로 선임되며 지난해 예고된 공동대표 체제 전환 절차를 밟았다.

HD현대는 경기도 성남 글로벌R&D센터에서 열린 제9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지난해 매출 72조2594억원, 영업이익 6조996억원의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보고했다. 그룹 시가총액은 100조원을 넘어섰고, 조선 부문에서는 세계 최초로 선박 5000척 인도를 달성했다.

권오갑 명예회장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리스크 대응과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동화·자동화와 소형모듈원전(SMR) 등 신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HD현대는 조선·에너지·건설기계 중심으로 사업 재편을 추진 중이다. 조선은 통합과 선별 수주, 공정 혁신으로 수

익성을 개선했다. 스마트 조선소 구축도 진행 중이다. 마스가(MASGA)와 관련해 미 해군 MRO 중심 협력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에너지는 HD현대 오일뱅크 중심 구조 전환과 고부가 확대를 추진한다. 건설기계는 통합 법인 기반 효율화에 나서고 있다.

HD현대는 배당성향 70% 이상 정책에 따라 주당 1300원 결산배당을



정기선 HD현대 회장

확정했다. 연간 배당금은 4000원이다. 주총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영철 부회장은 사내이사, 장경준 전 고문은 감사위원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HD한국조선해양도 주총에서 실적과 전략을 공개했다. 회사는 지난해 매출 29조9332억원으로 전년 대비 17.2% 증가했고, 영업이익 3조9000억원 이상을 기록하며 지주사 출범 이후 최대 실적을 냈다. 총 137척을 수주해 5년 연속 수주 목표를 달성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싱가포르 법인 설립과 베트남 HD현대에코비나 인수를 통해 해외 사업 체계를 강화하고 친환경 기자재 역량을 내재화했다. 필리핀 수빅 조선소를 활용한 MRO 거점 구축과 한미 조선 협력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 추진 기술과 AI 기반 생산 고도화도 병행한다. 통합 시너지 기반 경쟁력 강화와 특수선 시장 확대 계획도 제시했다.

조선사업 수주는 지난해 184억1700만달러를 기록했고, 올해 목표는 200억 4600만달러다.

정관 변경 등 안건도 원안 가결됐다.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은 삭제됐고, 사외이사 재선임과 감사위원 신규 선임이 이뤄졌다. 주주환원 정책도 이어간다. HD한국조선해양은 주주환원을 30% 이상을 지향하는 배당 정책을 유지할 방침이다.

/유혜은 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LG화학, 행동주의 펀드 안건 ‘모두 부결’

팰리서 지배구조 개편 요구 방어
김동춘 사장 “추가 주주환원 검토”



김동춘 LG화학 사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제25기 정기주주총회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원관희기자

LG화학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영국계 행동주의 펀드 팰리서캐피탈의 지배구조 개편 요구를 막아냈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주요 주주제안에 반대 의견을 행사하면서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과 선임독립이사 선임 등 팰리서가 내건 핵심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LG화학 제25기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제2안(정관 변경의 건) 안건 가운데 제2-7호인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안건이 부결됐다. 제2-8호 선임독립이사 선임 안건 역시 주주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주주제안은 모두 부결됐지만 이번 주총은 행동주의 펀드의 영향력을 확인한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IS

S와 글래스루이스 등 해외 자문사들이 팰리서 측 안건에 지지 입장을 보이면서 LG화학의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확대 요구 역시 시장의 적지 않은 공감을 얻은 것으로 해석된다.

LG화학은 권고적 주주제안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국내 법령과

도입 사례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정관에 반영할 경우 운영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임독립이사 제도에 대해서도 이미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만큼 별도 제도 도입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LG 에너지솔루션 지분 처분과 자사주 매입·소각 역시 기존에 제시한 중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LG화학은 주총에서 제기된 주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동춘 LG화학 사장은 주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은 주총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바탕으로 이사와 논의한 뒤 방향이 정해지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고 했다.

/원관희 기자 wkh@

삼성전자, 14.5조 규모 자사주 소각

주주가치 제고 의지 재확인

삼성전자가 약 14조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며 주주환원 정책 이행에 나섰다. 지난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예정대로 소각하면서 주주가치 제고 의지를 재확인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보통주 7335만9314주와 우선주 1360만3461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소각 예정 금액은 총 14조5800억원 규모다.

소각 예정일은 오는 4월 2일이다. 이번 소각은 지난해 회사가 매입한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자사주 소각은 발행주식 수를 줄여 주당순이익(EPS)과 주당가치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해 11월 대규모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회사는 1년간 총 10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분할 매입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순차적으로 소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는 해당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회사는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방식으로 자본금 감소 없이 발행주식 수만 줄여 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 주주들의 상대적 지분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업계는 이번 자사주 소각이 최근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과 맞물려 주주친화 정책 강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중심으로 실적 개선 기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주환원 실행이 투자심리 개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한화, 美 군수지원함 설계 사업 참여

현지 조선소 기반 함정사업 수행

한화필리조선소와 한화디펜스USA가 미국의 차세대 군수지원함 설계 사업에 참여한다.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출범 이후 한국 기업이 미국 현지 조선소를 기반으로 미국 해군 함정 사업을 수행하는 첫 사례다.

한화필리조선소와 한화디펜스USA는 함정·특수선 설계 전문업체 VARD(Vard Marine US, Inc)와 미국 해군의 차세대군수지원함(NGLS) 개념설계사업 협력 계약을 30일(현지시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서 양사는 NGLS 개념설

계의 주계약자인 VARD와 협력해 시장 조사를 진행하고 신규 플랫폼에 대한 개념설계와 개선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산 용이성 검토, 상선 건조 공법 적용, 생산 비용 분석도 지원한다. 기능설계 계획과 특수 연구 수행을 위한 옵션도 계약에 포함됐다.

NGLS는 기존보다 소형화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상과 육상에서 연료와 물자 보급, 재무장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이다. 이미 검증된 상용 기술을 적용해 비용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2027년 1분기 내 완료될 예정이다.

한화가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이

후 미국 해군 사업을 수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화그룹은 2024년 12월 한화필리조선소 출범 이후 생산 역량 강화와 현지 인력 확충 등을 위해 2억달러 이상을 투자해왔다.

이번 계약을 계기로 한화그룹의 미국 내 조선·방산 사업 확대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톰 앤더슨 한화디펜스USA 조선사업 부문 사장은 “한화는 VARD와 협력해 미국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의 설계 과정에 참여하게 돼 자랑스롭다”며 “이번 수주는 다양한 해양 작전환경에 배치된 미군 장병들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해군이 필요로 하는 함정을 건조하는 데 있어 한화가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조선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삼성전자 “빅스비로 AI 가전 관리하세요”

AI 가전 소프트웨어 고도화

삼성전자가 자연스러운 대화와 추론까지 가능한 똑똑해진 ‘빅스비’를 AI 가전에 적용해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기반으로 고도화된 인공지능(AI) 비서 ‘빅스비’를 자사 AI 가전에 본격 적용했다고 31일 밝혔다.

업그레이드된 AI 기능은 2026년형 패밀리허브와 에어컨, 로봇청소기, 정수기, 7형 스크린이 탑재된 세탁기 신제품에 적용됐다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빅스비는 정해진 명령어 없이도 자연스러운 일상 대

화를 이해하고 상황에 따른 추론과 판단까지 수행한다.

사용자는 빅스비를 통해 손쉽게 가전 제품 자동화 설정도 할 수 있다. 특정 시간이나 요일, 날씨 등 다양한 조건에 맞춰 기기를 제어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가전 관리와 문제 해결을 돕는 ‘기기 Q&A’ 기능이 강화됐다. 제품 사용법을 질문하면 음성 답변을 제공하며, 스크린 이탤패된 가전의 경우 안내 영상까지 함께 지원해 사용자 편의를 높였다.

삼성전자는 AI 가전이 집안의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고도화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구남영 기자